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1999. 12권 1호 pp.245~263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환경교육과정 개발연구(Ⅱ)

-사회·윤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석¹⁾-

김태현* · 남현우* · 신현철* · 조강현**

(*순천대 · **인하대)

A Study on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Standpoint of Ecology

- content analysis of current curriculum and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

Taehyun Kim · Hyunwoo Nam · Hyunchul Shin* · Kanghyun Cho**

(*Soonchun Univ · **Inha Univ)

Abstract

We analysed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nd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focused o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riteria of content analysis is what are the keynot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ism or ecology). In lower grades, most of curriculum and subjects are described on the standpoint of ecology.

But in upper grades, environmentalism becomes the keynot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Ethics curriculum and subjects a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ecology. On the other hand social studies and its curricula are written out skewed to the environmentalism. Overall, it seems that environmentalism and ecology are scattered in curriculum and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without coherent keynotes.

Key Word : environment,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standpoint of ecology, ethics curriculum

1) 이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새 천년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다가온 최대의 화두는 환경과 생명이다. 이 화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지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뿐인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 모두는 환경 파괴의 공범자들이다. 그런만큼 이 지구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지도자들은 국제 회의를 개최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각종 선언을 선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식있는 기술 공학자들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또 저널리스트들은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환경 오염의 실상을 인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힘써 왔다. 정부는 환경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규제와 예방을 해 왔다. 그리고 환경 운동 관련 단체들은 사회 계몽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노력 없이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에 주목했다. 좀 더딘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환경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 천년의 최대 화두인 환경과 생명이 중심에 서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교

육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환경 관련 국제회의와 선언, 저널리스트들, 시민 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교육은 서구의 관념론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행동주의를 교육 방법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관념론은 교육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른데 특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인간의 숭고한 노력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괜찮다는 입장에 있다. 한편 행동주의는 인간인 학습자를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학습자의 욕구 체계를 이용하여 소기의 학습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념론과 행동주의는 환경과 환경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곧 자연에 비해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교육관은 인간들 중에도 우월한 학습자와 열등한 학습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학습자관으로 이어져서 경쟁을 조장하고 경쟁 결과에 쉽게 승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패배적인 교육 실재를 합리화 해왔다.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보다 우월 의식 속에서 군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생활 자세를 갖게 된다. 개인적인 출세를 위하여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도 묻혀버리는 비정한

세계를 교육이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환경 교육은 교육 행위의 여러 영역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다. 환경 교육을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이 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교육의 일부분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과 더불어 살고 나눌 수 있는 아량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 교육이 교육의 전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때의 환경은 단순히 자연만이 아니고 주위의 동료나 다른 인간들도 해당된다.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 연구자들은 환경 교육에 관한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김태현 외, 1997; 남현우, 1998; 김태현, 1997). 이어서 본 고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환경 교육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1. 분석대상 교과목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의 바른생활 1,2학년, 슬기로운생활 1,2학년, 도덕 3,4,5,6학년, 사회 3,4,5,6학년, 중학교의 도덕 1,2,3학년, 사회 1,2,3학년, 고등학교 윤리, 공통사회(한국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이다.

2. 분석단위

교육부의 교육과정에서 구분한 각 교과의 내용 영역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영역 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교과의 내용 영역이 모두 제시되지는 않았다.

3. 분석준거

가. 주요 기조

환경교육 기조를 환경주의적 기조, 생태학적 기조, 절충적 기조로 구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기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환경주의와 생태학은 환경 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다른 시각에서 제시한다(구도완, 1996:44-54). 환경주의는 풍요한 소비 생활, 도시화, 산업화, 환경 파괴적인 산업 구조, 정부의 규제 소홀, 기업의 부도덕한 윤리, 시민 의식의 부재 등을 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환경주의는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강조한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구의 자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 성장이 끈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일변도의 발전 전략을 버리고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정실하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한 환경 위기는 한 차원 더 발전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이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부

인하지 않으면서도 과학과 기술이야말로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생태학은 '경제 성장과 생산력의 발전은 과연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의 문화 체계와 과학 기술 만능주의에 따른 인구 폭발과 풍요한 소비가 환경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 진단 위에서 생태학은 반성장주의 혹은 제로 성장주의 모델을 채택한다.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장주의를 위해서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금육주의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 변화 운동, 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론적인 근대적 세계관이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규모의 경제에 얹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끊임없이 소비적 욕구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활 양식의 총체적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태학은 주장한다.

나. 계열성

환경교육에 관련된 주제의 학년간 계속성과 포괄성 및 환경교육 기초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다. 관련성

교육과정과 교과서간의 환경교육 기초의 일관성 및 상치성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환경교육의 기초와 학년간 계열성 및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양적 분석 방법보다는 질적·서술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5. 분석 결과

가. 초등학교 바른생활

1)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생활은 '사회 생활' 영역에서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학년에는 '쓰레기 바로 처리하기'가, 2학년에는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기'가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볼 때 학년별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내용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생태학적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 교과서

1학년에는 '쓰레기의 종류 알아보기', '작은 양의 쓰레기도 모이면 많은 양이 된다는 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 '재활용하는 방법', '일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 등이 환경교육에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2학년에는 휴지를 분리 수거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내용과 학교에 있는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의 계열성을 볼 때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는 계속해서 환경 문제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 파괴적인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공히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초등학교 슬기로운생활

가. 교육과정

초등학교 슬기로운생활에서는 주로 '자연과의 관계' 영역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1학년에는 주위의 환경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관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들에 애착을 갖게하는 것 등이 환경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2학년에는 마을의 모습이나 주위의 풍경, 풀밭에 사는 생물, 그 밖의 물체와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이 환경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볼 때 자연 존중의 마음,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 근검 절약하는 태도 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나. 교과서

1학년에는 소풍날 자연을 관찰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며, 자연을 돌보며, 산과 들에 사는 생물들과 함께 즐기는 일과, 계절이 바뀜에 따라 달라진 풀, 나무, 열매, 씨앗, 벌레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려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 해보기 등이 환경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2학년에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며,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학교 주변에 있는 꽃, 나무, 동물들을 포함한 생물을 알아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식물의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 보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 공기의 특성을 알아보고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 등이 환경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의 계열성을 볼 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공히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초등학교 도덕

초등학교 도덕 교과의 하위 영역 중 '개인 생활' 영역, '사회 생활' 영역,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가. '개인 생활' 영역

1) 교육과정

3학년에서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쓰는 생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5학년에는 인간 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학년과 6학년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계열성을 볼 때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인

간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계속해서 생태학적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2) 교과서

3학년에서는 '참다운 봉사'를 설명하면서 학교 운동장의 쓰레기를 줍는 착한 아이를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자기 집도 아닌 기차길 옆에 꽃씨를 뿌린 할아버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5학년의 '생명의 소중함' 단원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은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열성을 고찰해 볼 때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이 견지하고 있는 생태학적 기조를 교과서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 생활' 영역

1) 교육과정

3학년에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4학년에는 환경 보호와 공동체의 삶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5학년과 6학년에는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계열성을 고찰해 보면, 환경 문제는 우리들 각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삶의 자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교과서

3학년에는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장려하는 내용이 있다. 4학년에는 '아낌없이 주는 자연' 단원에서 고마운 자연, 자연의 아름다움,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할까요?, 쓰레기 분리 수거의 이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학년의 '함께하는 생활' 단원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분리 수거, 유원지 주변 정리하기, 물건 아껴쓰기, 운동장 관중석의 난삽함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교과서의 계열성을 고찰해 볼 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의 생태학적 기조를 교과서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다.

다. '국가·민족 생활' 영역

1) 교육과정

교육과정 상에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원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예컨대 '살기 좋은 나라' 단원이 그것이다.

2) 교과서

6학년의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단원에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공업의 발전으로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환경 정화 시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과 개발을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주의적 기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는 없다.

4.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사회과는 주로 3, 4, 5학년의 ‘인간과 환경’ 영역과 ‘공동 생활’ 영역에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6학년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인간과 환경’ 영역

1) 교육과정

3학년에서는 우리 고장의 자연을 이용하고(땅의 이용, 물의 이용) 보존하는 모습을 통하여 고장의 자연 환경과 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4학년에서는 우리 고장의 위치 및 자연 환경의 내력을 조사케 하여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다. 5학년에서는 인구와 도시 문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문제 등을 상호 관련시켜 파악하게 함으로써, 살기 좋은 국토로 가꾸어 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강조하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5학년에서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도시화와 환경 파괴적인 산업 구조에서 찾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교과서

3학년에서는 우리 고장의 산과 들, 물이

더러워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깨끗한 자연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 고장의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4학년의 ‘자연 환경과 산업’에서 깨끗하게 잘 보존된 자연의 풍자적 가치가 언급되고 있다. 5학년의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단원에서는 짚주리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국민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무계획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로 농사가 안되어 현재와 같은 참담한 현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할 때는 환경 보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골이 도시보다 환경이 체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종합개발(새만금지구)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갑자기 환경을 너무 많이 바꾸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국토를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자연이 인간과 갖는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고, 4학년의 경우에는 자연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5학년의 경우에는 환경 파괴의 원인을 인간 우위(체적 환경을 쫓아 시골로 이주)의 소비 구조(아프리카의 기아 현상의 원인)와 산업 구조(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찾고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주의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두 기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나. '공동 생활' 영역

1) 교육과정

3학년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장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4학년에서는 여러 지역 주민들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조사하여 인간생활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고장의 생활 개선과 자치 활동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의 일환으로써 폐기물 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학년과 6학년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간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교과서

3학년에서는 산과 들, 물이 더러워지는 까닭을 알아 보기(각종 쓰레기, 폐수 무단 방류 등), 깨끗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 알아 보기(쉼터, 동물의 먹이 등),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기(쓰레기 재활용, 산에서 취사금지, 물건 아껴쓰기, 쓰레기 줍기 등) 등을 학생 스스로 조사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학년의 '자연 환경과 산업'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과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농업, 어업, 낙농업을 설명하고, 산간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촌과 산촌의 목가적인

정취를 묘사하고 있다. 4학년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 단원에서는 오폐수, 교통 혼란, 쓰레기, 국토 훼손 등의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5학년에서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3학년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의식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학년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과 산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연 환경의 풍자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환경 문제를 무분별한 소비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이 빚어낸 도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함으로써 환경 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은 생태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과서는 생태학적 기조를 중심으로 하되 환경 위기의 원인을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일부 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중학교 도덕

가.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과는 주로 '사회 생활' 영역에서 환경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학년에서는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2학년에서는 인간의 삶과 환경, 인간의 도덕성과 환경 문제,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환경 문제를 조사해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3학년에서는 '생명과 인권 존중' 단원이 환경 교육과 관

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교육에 관한 내용이 2,3학년의 '사회 생활' 영역에만 포함되어 있어서 도덕 교육의 측면이 아닌 환경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계열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2학년의 교육과정은 환경의 문제를 인간의 삶이나 도덕성과 결부해서 설명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생명과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환경을 논하고 있어서 일관되게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과서

2학년에서는 환경 오염의 심각한 사례, 환경 파괴와 오염의 원인, 잘못된 환경관과 인간의 무관심이 주는 심각성, 환경 문제와 인간의 생존권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해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이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 가스에 의해 유발됨을 설명하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의 농약 남용, 음식 찌꺼기 등으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각자의 잘못된 태도와 생활,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 환경 위기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발전된 과학 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발전된 기술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수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산업 폐기물이나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것을 우주

선에 실어 지구 밖으로 쏘아 버릴 수도 있고, 유전 공학을 통하여 오염 물질을 먹어 치우는 미생물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공해 없는 자동차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기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공해 농약과 세제, 소음 차단 장치, 썩는 비닐 같은 것은 모두 과학 기술의 힘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과, 자연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위해 얼마든지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두 가지의 시각 중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각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강조하는 전자의 시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료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폐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 음료수의 주 원료인 물이 오염되어 종국에는 물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은 만물과 함께 되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커다란 질서(大順)에 이르게 된다"는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우주의 질서가 확립됨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이익만을 따지는 기업인과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질 보다는 양적인 발전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

하고 무관심 속에 환경 문제를 내버려 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3학년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단원에서는 인류애에서 자연애가 발현될 수 있고, 인간의 삶과 자연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도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가에서는 미물의 생명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유가에서는 자연성을 가치롭게 여기며, 노자는 무위자연을 최고의 덕목으로 주장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은 인간들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생산력을 무한히 증대하고 무한히 소비하는 것은 자연의 파괴와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체 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학년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나, 환경 오염의 원인이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가의 부도덕성 등에 있다는 주장, 그리고 환경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기업가, 정부, 계몽 안된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 등이 그 근거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를 더 가치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면서도 중국에는 환경 파괴가 인간의 생명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유도함으로써 역시 환경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2학년 교과서의 경우에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3학년의 경우에는 생태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3학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생태학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2학년은 서로 상치되고 있다.

6. 중학교 사회

가.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주로 '지리' 영역에서만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1학년에는 인구와 사회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의 도시화가 가져온 삶의 질의 악화, 남부 아시아의 인구 증가와 식량 문제,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파괴와 기아 문제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2학년에는 유럽 지역의 공업 발달과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를 다룬 내용이 있다.

3학년에는 세계 각 지역의 공업화, 도시화 현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를 지구적 시야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각 지역의 협조가 필요함을 깨닫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자원의 지역적 편중은 세계 각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1학년에서는 남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를, 2학년에서는 유럽지역의 공업

발달과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를, 3학년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의 발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범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식으로 계열성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 위기의 원인을 도시화, 산업화 등에 둔다는 점에서는 환경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교과서

1학년에서는 수도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산업 시설의 집중,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등에 의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중부 서해안의 간척지 개발로 지어진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 등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열대림 훼손이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예컨대 인구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점이나 기아 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학년에서는 북서부 유럽이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하여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공업화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경 오염이 적은 첨단 산업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

문제라고 보고 있다. 행복과 번영을 위한 산업화 정책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멍들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봄으로써 환경주의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3학년에서는 지나친 공업화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는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환경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화로 생활 환경의 질이 나빠졌는데,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쾌적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물자를 소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지나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개발을 할 때에는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여야 하며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보전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자원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여 굽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자원 절약형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매장 지역을 찾아내거나, 저품위 자원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대체 자원(태양 열, 해저 자원 등)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는 증가하면서 필수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원료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어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지구 차원의 문제이므로 선진국은 소비를 억제하고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산업계는 사회 복지를 위해 일정 액수를 투자할 것을 제의한 로마클럽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사막화 현상과 열대림 파괴,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의 확산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들로서 3R 운동, 아나바다 운동, 잃어버린 숲 되살리기, 종이 아껴쓰기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과제로서 인구 증가와 자원 감소,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예:아랄해) 등을 제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환경 단체들이 결성되어 환경 의식의 고취와 환경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에 기술 개발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주의적 관점을 취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의 자연 파괴가 그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2,3학년 모두 환경개량주의의 관점에서 기술 발달로 환경 위기를 벗어나려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학년의 경우에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나 전지구적인 문제로 환경 위기를 지각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1학년의 경우에 교육과정에 언급된 일부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취급되지 않고 있고, 환경주의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이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2학년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 환경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학년의 경우에는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7. 고등학교 윤리

고등학교 윤리 과목은 '사회와 윤리' 단원 중 '시민 생활의 윤리', '생명 존중과 윤리', '환경과 윤리' 등에서만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을 뿐 환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가. '사회와 윤리' 단원

1) 교육과정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서는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추기', '건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등으로 단원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기술된 내용이 너무 번역하기 때문에 환경 교육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가름하기 어렵다.

2) 교과서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교과서의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는 "...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 존중, 환경, 성, 과학 등과 윤리에 대한 문제점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지침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단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생활 윤리' 소단원의 '시민 생활 윤리' 부분에서 환경 교육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후손들도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보전해

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환경 오염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도덕감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환경 오염 유발자에 대한 감시자이며 그들을 고발하는 책임있는 사회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윤리와 문제’ 소단원의 ‘생명 존중과 윤리’ 부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명 존중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 환경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생명체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모든 생명을 보전하는 데로 확대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인간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과 연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하며, 인간과 자연은 ‘적대’ 혹은 ‘지배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혹은 ‘형제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인간도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이나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함은 물론, 모든 생명을 아끼며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과 윤리’ 부분에서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당초에 원하지 않았던 환경 오염이라는 위기 속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위기는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연에 대한 침탈과

파괴를 일삼았던 서구인의 ‘인간 위주’의 사고 방식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고 자연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하고 생각하였던 서구인들의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무분별한 자연착취와 자원 암용을 정당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와 자연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서 과학 기술을 남용했던 인간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인간의 무지로 자연 자원은 크게 고갈되고, 예측하지도 못한 환경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에는 엄청난 자원과 오랜 세월이 필요하며, 고갈된 자원을 대체 할 수 있는 자원의 개발은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도 한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셋째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에 부응하는 무절제한 소비 형태 및 사회 구조가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따라 생태계의 자연스런 순환이 단절되었고,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나 재생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이른바 ‘생태계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산업화 과정이 필요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유용한 자원을 이용하게 되므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산업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예로서 지구의

대기 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 목축지의 증가와 벌목 등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 공장과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한 인한 인간의 위기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많은 나라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의를 계속하고 세계적인 기구를 통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이와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 구조를 변화시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생태적 위기는 바로 인간 자신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참된 인간성을 되찾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꾀력하고 있다.

첫째, 생태계의 보전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하며, 둘째,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셋째,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제각기 생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태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넷째, 자연 자원의 낭비는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자연 자원의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꽃과 나무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며,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자연 환경의 위기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온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구는 하나이며, 단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회의의 예로 스톡홀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와 브라질의 '리우 환경 회의' 그리고 자연 보호 현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연을 보전하는 슬기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축을 기르고 텃밭을 짐 가까이에 두는 전통적인 생활 문화가 발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회와 윤리' 단원의 환경 관련 내용을 고찰해 본 결과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의 '사회와 윤리' 단원이 환경 교육에 대해 어떤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으나, 교과서의 그 단원 내용이 생태학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나. '국가와 윤리' 단원

1) 교육과정

'국가와 윤리' 단원이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교육과정 상에서 발

견할 수는 없었다.

2) 교과서

‘국가와 윤리’ 단원 중 ‘국제 관계와 윤리’ 소단원의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각’ 부분에서 환경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어느 국가나 개인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폐쇄된 사회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위 지구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환경 관련 내용들이다.

첫째로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를 들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된 대기 오염과 지구 온실 효과, 성충권의 오존층 파괴와 이상 기후 현상, 수질 및 토양 오염 등은 생태학적 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 오염은 자연의 자정 능력을 위태롭게 만들며, 결국 전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릇된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환경 오염 문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특정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우리는 모두 지구촌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구 폭발과 식량 부족,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이 초래할 가공할 결과를 심각히 생각하고, 전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이 식량과 자원 문제는 지구촌 의식을 토대로 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와 윤리’ 단원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도시화와 산업화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환경주의적 관점을 일부 갖고 있으나,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등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의 ‘국가와 윤리’ 단원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8. 고등학교 공통사회(한국지리)

고등학교 공통사회(한국지리) 과목에서는 주로 ‘국토의 이해’ 단원, ‘생활 공간의 변화’ 단원, ‘경제 활동의 지역 구조’ 단원,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단원 등에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가. ‘국토 이해’ 단원

1) 교육과정

국토 개발 방식이 균형 개발과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내용이 있다.

환경주의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동시에 포괄하는 절충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중에서, 인간 생활은 자연이 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환경 결정론’과, 인간 집단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된다는 입장 즉,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부여할 뿐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일은 인간이 한다는 ‘가능론’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일방적으로만 파악하려던 환경 결정론이나 가능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보는 생태학적 견해가 등장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보아, 인간과 자연을 따로 떼어 생각하려 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보고, 유교적 자연관이나 풍수지리설 등이 그 증거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절충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 환경주의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 등을 포괄하는 절충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나. '생활 공간의 변화' 단원

1) 교육과정

우리나라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든가, 지난친 인구 집중 현상이 빚는 심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특별한 기조가 없어 보인다.

2) 교과서

농어촌 지역도 아직 도시나 공업 지대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농어촌의 재정이 빈약해 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가 수반하는 문제 중의 하

나는 환경의 파괴 및 오염이라고 보고 있다. 자연 경관의 파괴와 녹지의 부족,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및 소음과 진동은 도시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자원의 유한성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에 상응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도시화와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볼 때 환경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는 점을 볼 때 생태학적 관점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한 관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교과서에서는 환경주의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다. '경제 활동의 지역 구조' 단원

1) 교육과정

산업화로 인한 자원과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우리나라 현실과 연관시켜 다루는 내용, 우리나라 공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상에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띠고 있다.

2) 교과서

무계획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자연의 조화와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생활 터전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보

고,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업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각종 폐기물과 매연, 폐열, 소음과 먼지 등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업화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속성 때문에 도시화를 촉진시켜 도시 과밀 문제를 유도하고, 공장 근로자의 거주 지역은 흔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도시내의 문제 지역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값이 싼 공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 사업으로 해안 환경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환경 위기에 대응할 지혜를 모을 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로 배기 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러한 대기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인구 집중 등으로 보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 파괴는 감수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요하게 보는 등등 환경주의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한 기조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교과서에서는 환경주의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라.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단원

1) 교육과정

인구 증가, 산업의 발전, 생활 수준의 향

상 등에 따라 물, 공기, 토양이 오염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 유형을 알아보고, 산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환경 파괴 또는 오염의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환경 파괴 또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직접·간접적인 피해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상으로는 환경 주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교과서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로부터 벗어나 자연 환경과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체적한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 개발은 효율성, 형평성, 국가 통합성, 환경 보전이란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는 작용과 반작용과 같은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조절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생태계이다. 조절계로서의 생태계는 각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태계의 위기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환경 파괴,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는 20세기 중반 이후 전지구적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오염이란 무엇이며 환경 오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존층 파괴나 온난화 현상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환경 오염의 실태는 어떠한지, 환경 보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내용이 있다. 환경은 국민 보건의 측면에서 필요하고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번영과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 생활 그 자체가 자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은 아끼고 보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 보전은 국민 보건의 측면과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풍요롭게 잘 살아보려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환경 악화라는 반작용을 일으켜 인간의 생존과 번영 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1차적으로 환경 속에서 공급받는 것이기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환경을 떠난 인간 생활을 생각할 수 없고, 환경은 넓은 의미의 자원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은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의 피해는 오염 발생 후 장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고 일단 피해가 가시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오염을 줄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기술적, 제도적, 생활 의식 측면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및 물리적 시설에 대한 투자 못지 않게 제도와 사람들의 의식도 환경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

도 있다.

환경 보호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 기구인 환경부나, 연구 단체인 국립환경연구원, 그리고 민간 환경운동 단체 등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환경주의적 관점이 주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 등을 강조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생태학적 관점을 나타내는 곳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환경 교육 기조는 환경주의를 띠고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

교육과정 상에서는 환경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과서도 환경주의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환경 교육의 관점에서 초·중등 사회·윤리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환경 교육의 주요 기조가 무엇인지, 이들이 학년간에 계열성을 이루고 있는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이었다.

분석해 본 결과, 저학년에서는 주로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환경 교육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환경주의적 관점이 강세를 띠고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위주로 한 교육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학교 환경 교육을 통하여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민 계몽 운동 차원에서 환경 교육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리 교과는 주로 생태학적 관점을, 사회 관련 교과는 주로 환경주의적 관점을 띠고 있다. 문명과 의식 전환 운동 등을 환경 위기의 주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기 쉬운 윤리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생태학적 기조로 환경을 논하기가 쉬운 반면, 사회 관련 교과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정부, 사회 단체의 환경 개선 노력을 소재로 환경을 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주의적 기조를 띠기 쉽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구도완(1996).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김태현 · 신현철 · 남현우 · 조강현(1997).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환경교육과정 개발연구 -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실태와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 환경교육, 10(2), 87-99. 한국환경교육학회.

김태현(1997). 중학교 환경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인문과학논총, 3, 87-112.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남현우(1998). 초등학생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총, 5, 173-187.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